

['고난의 역사현장' 일제전적지를 가다](80)

제3부:군사요새로 신음하는 제주-20 (2)96사단 주둔지-(16)292-294연대 종합
지방정부·학계 등 무관심 속 방치

입력 : 2007. 09.06. 00:00:00



▲한라산 관음사 야영장 부근 평굴 일대 일본군 갯도 내부에서 무더기로 확인된 갯목 설치현장을 취재팀이 조사하고 있다. /사진=이승철기자 sclee@hallailbo.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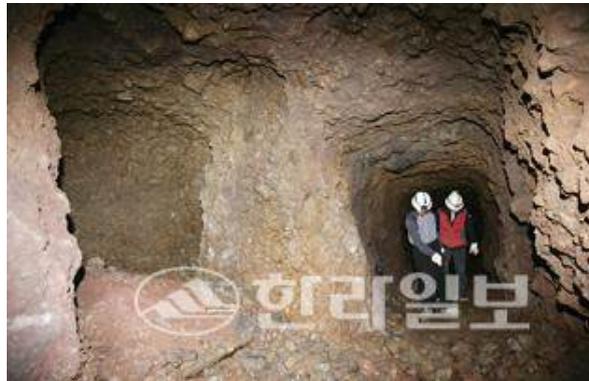
4월 이후 12개 오름서 갯도 등 60여곳 확인 상당수 이제야 실태파악... 당국 조사 시급

예나 지금이나 제주시권은 제주도의 관문이자 중심이다.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제주시권을 장악한다는 것은 곧 제주도 전체를 좌지우지 하는 것과 같다. 태평양전쟁 당시 제주도에 주둔했던 일본군 또한 이러한 점을 간과할리가 없다.

일제가 4·3 당시 집단 학살 암매장지였던 정뜨르비행장(현 제주국제공항)을 만들고, 산지항을 중요시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미군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의 유력한 상륙예상지로도 점쳐졌다.

한라산을 중심으로 한 제주시 중앙부와 해안가의 오름에 갱도 등 많은 군사시설이 들어선 것은 이러한 전략적 중요성을 반증한다.

하지만 제주 중심부에 대규모 갱도들이 숨겨져 있었음에도 이들 중 상당수는 그 실제조차 알려지지 않아왔다. 지방정부도 그동안 거의 무관심으로 일관한데다, 관련학자나 전문가들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태평양전쟁 말기 일본군이 만든 군사시설 조사연구는 여전히 기초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제주시 산천단 일대 일명 '섯굴치'계곡에서 확인된 대형갱도 내부

지난 4월부터 제3부를 시작하면서 집중탐사에 들어간 제주시권의 일본군 군사시설은 기존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때문에 취재팀은 당시 징용됐거나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에게 대한 증언을 토대로 해서 현장탐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정작 탐사를 통해 드러난 갱도는 뜻밖으로 대규모여서 취재팀을 놀라게 했다.

취재팀은 그동안 제주시 중앙부에 대한 집중탐사를 통해 12개 오름에서 모두 60여 곳의 갱도를 확인했다. 흔적까지 포함할 경우 1백여 곳 이상이 된다.

특히 민오름과 남조봉 광이오름 상여오름 일대에서는 무더기로 일본군 갱도가 확인돼 시선이 집중됐다. 대규모 갱도와 일본군 군사지도인 제58군배비개견도 등 각종 문헌자료, 증언 등을 토대로 이곳은 제주시 서부권의 가장 강력한 일본군 주저항진지로 구축됐음이 드러났다.

광이오름에는 특별취재팀이 탐사결과 10여개 이상이 일본군 갱도가 구축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근의 민오름 남조봉 상여오름에도 많은 일본군 갱도가 구축돼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광복 6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제대로 알려지지 않으면서 묻혀져 왔다.

또한 산천단 셋굴치계곡의 292연대본부 주둔지 등도 주목이 됐다. 갱도 규모가 대형인데다, 그 내부에 10여개에 이르는 크고 작은 공간이 마련돼 있어 비상한 관심이 모아진 것.

셋굴치계곡의 갱도는 당시 96사단 본부에서 일했던 생존자의 증언을 통해 292연대본부 사무실

용도로 이용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탐사를 통해 일본군 주둔실태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제주시 연동소재 검은오름 갯도내부에 빠져 죽은 채 뼈만 남은 소의 잔해.

이뿐만이 아니다. 관음사 평굴 일대에서는 갯도 내부에 갯목이 다량으로 남아있는 생생한 현장이 확인돼 관심을 끌었다. 것처럼 많은 갯목이 남아있는 갯도가 확인되기는 처음인데다 당시 갯도구축 과정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사현장으로 평가된다. 때문에 추후 정밀조사를 통해 당시 갯도구축 과정 등이 규명돼야 한다.

일본군은 제주민들이 신성시했던 성소의 하나인 물장오리까지 갯도를 구축하는 등 전쟁이 남긴 상처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제주도 차원에서도 태평양전쟁 시기 일본군 군사시설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도는 제주시 한라수목원이 자리한 광이오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데 이어 내년도에는 보존 정비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언론에서도 광이오름을 비롯 제주도내에 구축된 일본군 군사시설 관련 보도를 내보내는 등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군이 남긴 갯도진지 등 군사시설에 대한 실태파악과 역사적 성격규명 작업을 통한 보존방안 마련 등이 하루속히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특별취재팀=이윤형 표성준 이승철기자

[탐사포커스]96사단 주둔지 및 군사시설 구축 윤곽

취재팀이 탐사를 통해 일본군 주둔실상을 추적한 결과 제주시 산천단 일대에는 96사단본부가 주둔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인근지역인 삼의양오름 일대 및 셋굴치, 서삼봉·소산봉 일대는 96사단 292연대병력이 주둔했다.

96사단 예하의 294연대는 제주시 오등동 정실마을 일대에 포진했다. 오등봉~민오름~남조봉~광이오름~상여오름으로 둘러싸인 개활지와 난지농업연구소 일대가 해당된다.

이러한 탐사취재 결과는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군 군사지도인 '제58군배비개견도'와 상당부분 일치한다. 일본군은 이러한 작전지도를 들고 제주도를 손바닥 들여다보듯 하면서 미군 등 연합군과의 최후의 전쟁에 대비했다.

96사단 292·294연대 주둔지에서 확인된 갯도진지 숫자(괄호는 갯도흔적 등을 포함한 것)

▷ 산천단 석굴치=12, 동굴치:1 ▷ 민오름=5(18곳) ▷ 오등봉=3(6~7곳) ▷ 광이오름=13(15곳 이상) ▷ 상여오름=4(10여 곳) ▷ 남조봉=7(10곳 이상) ▷ 도두봉=4(6~7곳) ▷ 검은오름(제주시 연동 소재)=2(3~4곳) ▷ 열안지오름(제주시 오라동 소재)=1(3~4곳) ▷ 관음사 평굴=3 ▷ 물장오리=3(6~7곳) ▷ 테역장오리=2(4~5곳).

/이윤형기자

※한라일보(www.hallailb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저작권 문의 특별취재팀 064-750-2231

<저자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